

지역 매아리

김제시, 청년창업가 양성 앞장

청소년 선도·보호가두 캠페인 펼쳐

김제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김제시는 최근 SNS를 활용한 시민들의 정보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문화·관광·정책 등의 온라인 홍보와 시민·관광객들과의 소통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를 선발하고 지난 15일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김제 알리기 활동에 나섰다.

서포터즈 29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발대식은 위촉식, 윤리강령 낭독, 활동 및 운영 안내, 기념촬영, 주요문화재 탐방 등으로 진행됐다.

「김제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는 2020년 11월까지 1년 동안 김제시와 관련된 시정 미담, 생활·공익정보, 감동스토리 등을 발굴하고 관광명소, 먹거리, 축제·행사 등을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등 김제 시민의 눈과 귀, 입이 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서포터즈는 1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를 초월한 연령 분포와 학생, 주부, 프리랜서, 회사원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시민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되며, 김제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는 타 지역 거주자가 다수 포함되어 최적의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창의적인 사고로 김제의 매력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새롭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써 김제의 브랜드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제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는 지난 9월23일부터 10월27일까지 인터넷 접수를 통해 시와 시정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갖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SNS 활동 능력과 의지를 고려해 최종 29명을 선정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보건소, 치매안심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명랑 운동회 개최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5일 치매안심마을 월성동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명랑운동회를 실시하였다.

치매가 있어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인 치매안심마을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김제제일사회복지관, 교월동 남산마을 주민 10여명이 함께 참여하여 치매인식개선을 높이는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주민도 함께 할 수 있는 웃음 레크리에이션, 비석치기, 2인 3각, 돼지 볼기 게임 등 10여 가지의 게임을 환자와 가족이 참여하였다. 이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과 치매 친화적인 분위기 확립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공감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시·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 기획

청년창업 지원 ‘아리’ 네트워킹 데이 개최

김제시(시장 박준배)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광진)가 김제시의 청년창업가들을 위한 네트워킹 데이를 공동으로 기획, 큰 호응을 얻었다.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14일과 16일 오후 1시 30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교육장에서 2회에 걸쳐 김제시 청년창업가 ‘아리’와 함께 하는 ‘Grow up 멘토링&네트워킹 데이’를 개최, 내실 있는 창업가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창업가의 입장을 고려한 선택적 매칭과 함께 참여자

간 소통을 통해 상호 문제해결 기회를 제공했으며 전문가 특강 및 수요 맞춤형 실전 멘토링으로 비즈니스 데이일 공동으로 기획, 큰 호응을 얻는 평이다.

지난 14일에는 ‘고객의 뇌를 여는 전략’이라는 주제로 ‘장사의 신’ 김유진 대표가 특강을, 16일에는 ‘미래 업무환경의 변화와 푸드테크의 모습’을 주제로 달리셔스 이강용 대표가 강의를 준비해 ‘아리’ 참여자의 사업화 방향을 진단해 줬으며, 브랜드 마케팅 등 10개 분야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개인별 심도있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초기 창업가의 내실을 다지는 기회를 마련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김제시의 청년창업가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이번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지역 창업 문화 확산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청년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청년창업가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아리(AIR-RE)’ 사업은 ‘모든 것(AI)을 다시, 새롭게(Re)’ 시작하자는 의지를 담은 김제시 사업명으로 전북 최대 규모의 청년창업가 26팀 31명을 선정, 총 사업비 6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유관기관-시민단체, 계도 활동 진행

김제시 체육청소년과(과장 이도명)는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끝난 지난 14일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손잡고 김산동(홀플러스)에서 요촌동(터미널)까지 청소년 선도·보호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매년 수능이 끝난 후 음주·흡연·가출 등 청소년의 일탈을 유혹하는 유해환경이 늘어남에 따라 사전에 유해환경을 차단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김제시와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이 손을 잡고 나선 것이다.

이날 캠페인은 김제시, 김제교육지원청, 김제경찰서, 한국자유총연맹,

패트rolled 등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70여명이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으며 캠페인 후 진행된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은 노래방, 숙박업소, 담배·주류 판매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청소년 출입 및 고음금지, 청소년에게 담배·주류 판매금지 스티커 배부 및 안내 등의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도명 체육청소년과장은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 유해물건에 대해 어른들이 관심이 필요하며 김제시도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꾸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배드민턴·족구 대회 성황

“건강한 체육활동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완주군에서 체육인들의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완주군에서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축제인 2019 제16회 완주군수배 배드민턴 대회와 ‘완주군 한마음 족구대회’가 열렸다.

구이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축제인 2019 제16회 완주군수배 배드민턴 대회는 클럽 동호인들이 대거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완주군체육회와 완주군 배드민턴 협회가 각각 주최·주관하고 완주군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등으로 치러졌다. 대회에는 관내 배드민턴 동호인 300여명이 참가해 불꽃 튀는 열전을 벌였다.

병동 전용 족구장에서 열린 완주군 한마음 족구대회는 관내 11개 족구클럽 동호인 100여명이 참여해 자웅을 겨뤘다. 완주군 족구장은 3개면을 갖춘

족구 전용구장으로 족구를 즐기는 생활체육인들의 편의를 위해 완주군은 지난 10월 37면의 주차장 편의시설도 갖추 최고의 시설로 정평이 나왔다.

배드민턴 대회 개최식에 참석한 박성일 완주군수는 “건강한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완주군 배드민턴의 발전 및 생활체육을 즐기는 분들의 화합이 되길 바란다”며 “완주군의 대표 생활체육 종목답게 배드민턴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수료식’ 실시

김제시는 지난 1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료생과 관계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수료식을 실시했다.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은 지난 5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총 25회, 100시간의 과정으로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주관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성공한 귀농인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6개 분야(딸기, 토마토, 포도, 다육이, 버섯, 농산물 가공)의 현장실습교육장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

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김모(50세)씨는 “성공적인 귀농귀촌의 희망과 계획을 가지고 김제시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영농기술을 왔지만 두려움으로 망설여 왔는데 이번 교육을 통하여 귀농·귀촌 성공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귀농·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귀농창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



김제시는 지난 1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수료식을 실시했다.

공하고 안정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펼쳐 귀농·귀촌하기 좋은 김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은 산림청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6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 공모’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완주군, 전국 최고 무궁화 명소

전국 지자체 대상 명소 공모전서 최우수기관 선정

완주군이 나라꽃 무궁화 명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완주군은 산림청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6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 공모’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농림부장관표창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아름다운 무궁화 조성에 기여해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현재 군은 나라꽃 무궁화의 선양 및 홍보를 위해 무궁화 100리길, 무궁화테마식물원, 무궁화동산, 무궁화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에 걸쳐 용진읍에서 화산면에 이


르는 18km의 구간(국도17번)에 다양한 무궁화 품종 1만5000 본을 식재하기도 했다.

이들 무궁화들은 지역주민과 함께 가꾸면서 아름다운 도로경관과 일차리창출까지 연계해 일석이조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특히, 완주군은 산림청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회 연속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개최지로 선정된 무궁화 특화도시이기도 하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나라꽃 무궁화 특화도시로서 사명감을 갖고 일상에 사랑받는 꽃이 될 수 있도록 무궁화 선양과 보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